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

이명박 대통령, 오늘 아침 첫 라디오 연설 “외환위기와 지금은 달라” 국민 협조 당부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라는 타이틀의 첫 ‘라디오연설’을 하루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울였다.

라디오를 통한 국민과의 첫 접촉인 데다 주제가 미국발(發) 금융쇼크에 따른 경제위기인 만큼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인 시장을 진정시키고 위기극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

특히 현 시점에서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의도가 잘못 전달될 경우 오히려 파장이 커질 수도 있는 만큼 표현 하나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청와대는 그간 홍보기획관 산하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만든 연설문 초안을 놓고 2차례 독회를 가진 데 이어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던 가운데 이날 오후 11시부터 점심을 뒤로 미뤄가며 약 3시간 동안 마지막 독회의 시간을 가졌다.

독회에는 박형준 홍보기획관, 맹형규 정무수석, 이동관 대변인, 정용화 연설기록비서관, 이상복 홍보2비서관, 김두우 정무기획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독회에서 “97년 외환위기 당시와 지금은 다르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며 국제금융위기와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각오를 밝히고 국민에게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 등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은 13일 오전 7시15분 각 라디오를 통해 8분30초 동안 전국에 방송된다.

이 대통령은 이를 시작으로 한가지 주제를 놓고 한 번에 10분 이내에서 정부 정책 등을 알리는 라디오 연설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 국정을 마비시켰던 ‘쇠고기 파동’에서부터 최근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논란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첫 라디오연설 시기를 놓고는 내부에서 찬반논란이 적지 않았으나 이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섰는데도 시장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부담을 고려해 시기를 좀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 대통령이 ‘MB답게’ 정면돌파를 선택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경호처 무술시범 관람과 자원봉사활동을 마지막으로 주말 외부일정을 잡지 않고 있으며, 지난 토요일 오후에는 경제 관계 장관들을 청와대로 불러 현안을 논의하는 등 경제 현안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63차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총회, G20 재무장관회의, 한·일 재무장관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함에 따라 청와대 수석들로부터 경제 현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연동목기자 tuim@kwangju.co.kr



‘명량대첩 축제’ 찾은 DJ 내외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가 지난 11일 진도대교 일대에서 열린 ‘2008 명량대첩축제’ 현장을 방문한 뒤 환영인파에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동교동-상도동계 ‘매월 한자리에’

민주협 출신 “DJ-YS 화해가 최종 목적”

정치적 맞수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민주협 출신 상도동계, 동교동계가 매달 한자리에 모이고 있다.

이들은 80년대 민주화추진협의회(민주협)를 함께하며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지만, 87년 대선후보 단일화와 정에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결별하며 각각 양김세를 쫓아 상도동계와 동교동계로 나뉘진 뒤 좀처럼 화합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까지는 1년에 한두번 형식적인 전체 모임만을 가져오던 이들이 지난 7월부터 매달 오찬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화해모드 조성에 나서고 있다. 종교적인 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양 김씨의 화해다. 모임을 주도한 한 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우리의 종교적인 목표는 양김씨 화해”라며 “우리끼리 우선 만나 분위기가 조성되면 두 분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선처럼...” 巨興 견제 선봉장

국감 인물

문방위 서갑원 의원



또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국감장에 진의경이 배치된 것에 대해서도 “국회가 이렇게 농담 당했는데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승수 총리에게 항의 방문하는 것을 주도하기도 했다.

‘서결렬’.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로 18대 국회 개원과 원구성 협상에서 ‘강경 모드’를 보여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로부터 얻은 별명이다. 서 의원의 이런 면모는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최전방으로 꼽히는 문화체육방송통신위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돼 서 의원은 원내지도부 일원임에도 조선의 원처럼 직접 ‘저격수’로 거여(巨興) 견제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감에서 서 의원은 신재민 차관을 상대로 YTN 지분매각 문제를 집중 추궁한데 이어 7일 국감에서도 갑질이나 많은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다시 ‘YTN 징계사태’ 문제를 제기, 국감장에서는 ‘서 의원의 목소리밖에 안 들린다’는 말이 나왔다. /연동목기자 tuim@kwangju.co.kr

강운태 의원·신정훈 나주시장

법정 공방 2라운드 예고

검찰 “무죄 인정 못해” 항소

강운태 국회의원과 신정훈 나주시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들을 둘러싼 또 한 차례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광주고법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시장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의원에 대해 지난 8일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일괄 제출했다.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한 항소이유서에서 선거운동원에 돈을 주는 ‘자금 흐름도’와 돈 봉투가 건네진 식당을 묘사한 ‘평면도’까지 첨부해 가며 원심 판단의 부담함을 역설했다. 검찰은 “증인 서모(52)씨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인간 기억력의 한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심 법원은 검찰에게 모든 단계에서 진술이 일치해야 한다며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한 것”이라며 “원심은 돈이 건네진 사실은 외면함으로써 공소사실의 본질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

장했다.

신 시장에 대해서는 자책 미달의 화해영농조합에 국고 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부당 지급한 사실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강 의원의 경우 검찰이 별다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서씨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서씨의 진술이 자주 번복된 점은 검찰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어 원심이 지적한 대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를 남기지 않고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 시장의 경우에는 화해영농법인 대표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마당에 신 시장이 고의적으로 보조금을 부당 지급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자기당첨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시의회 ‘U대회 유치 동의안’ 처리 가시화

정가 브리핑

김형오 국회의장 전남 방문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정감사 기간동안 역사문화 현장체험과 미래구상을 위해 실시하는 ‘국토 현장 투어’ 첫 일정으로 전남을 방문, 서남해안관광재단에서도 등 지역 현안을 챙겼다.

김 의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수석 등 핵심 참모진과 함께 고흥 나로도 우주센터와 순천만 자연생태관, 낙안읍성 음식대축제장 등 지역 현장을 살펴보고 여론을 수렴했다.

특히 김 의장은 박준영 지사와 만나 최근 간척지 양수문제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남해안관광재단에서도 건설과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 조기제정, 조선산업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대회

받는 등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며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서남해안관광재단에서도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게 했다.

○--광주시의회가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유치를 위한 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어서 광주시의 유치 경쟁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13일 제 174회 임시회를 열고 광주시가 제출한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동의안 제출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39조 1항)과 시행령(15조)에 따른 것으로, 시의회는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U대회를 ▲기존 지역 체육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대회

운영비를 절감하는 경제 대회 ▲광주의 고유 문화를 활용하고 광주 정신을 알리는 문화 및 평화, 화합의 대회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동북공정 대응방안’ 출간



○--민주당 박준 의원(광주 동구)은 12일 ‘주중 국제사관 국감조사’와 관련, 2008 국정

감사 정책자료집 3편 ‘중국의 동북공정과 백두산공정의 실제와 대응방안’을 출간했다.

박 의원의 정책자료집 발간은 지난 5월 1편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대안’, 10월 2편 ‘독도 영유권의 법적·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 발간에 이어 세 번째다. /박지경·채희중·김지을기자 jkpark@

Accel Academy 초·중·고 미국유학 설명회. A large blue and white advertisement for an American study abroad seminar. It features a photo of a woman and text in Korean and English. The text includes '미국유학 설명회' and 'Accel Academy'.

일중한의원. A medical advertisement for Iljunghwan Hospital. It features photos of three doctors and text in Korean. The text includes '일중한의원' and '일주연세'.